

한·미관계는 경제협력면서도 중요

「록펠러」 총재 주최 만찬 만찬사

1981년 1월 30일

「록펠러」 총재, 귀빈, 그리고 신사 여러분!

본인은 우선 오늘 저녁 본인을 이와 같이 훌륭한 만찬에 초대하여 주시고 본인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귀중한 말씀을 하여 주신 「록펠러」 총재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인과 본인 일행을 따듯이 영접해 주시고 극진한 대우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세계의 금융·문화·교육·경제의 중심지인 가장 웅대한 도시를 방문하여 생기 넘치는 도시의 활력과 시민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뉴욕」의 활기와 진취적 기상은 17세기 초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하여 불굴의 의지로 미국을 개척한 위대한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티」섬에 우뚝 솟아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인의 숭고한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뉴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많은 마천루는 20세기 미국의 능력과 기술의 결정인 걸작품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인류의 위대한 가능성과 미국의 실용주의의 놀랄만한 결과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칭송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난날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지난해의 우리나라 총교역량은 약 400억불에 달했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특히 미국의 자본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며, 그 선도적 역할을 귀 「체이스 맨하탄」은행을 비롯한 미국계 은행들이 담당하였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44개에 달하는 외국은행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중 18개 은행이 미국계 은행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대외교역은 한국경제의 69.2%를 차지하고 우리 나라 수출의 26.3%는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작년 한 해 동안 48억달러로서 총수입의 19.8%를 차지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숫자를 인용하는 것은 오늘날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협력면에서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앞으로 민주와 복지가 실천되는 사회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 없이는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덧붙여 외국인들의 투자가 또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조치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있음

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관계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 「록펠러」 총재와는 구면으로서 그와의 지속적인 친분관계 증진을 본인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록펠러」 총재의 건강과 「뉴욕」시의 발전, 그리고 한·미양국 국민의 돈독한 우의를 위해 축배를 듭시다.

감사합니다.

